

아프리카합중국, 그 신화적 함의와 현실적 한계*

한 양 환 | 영산대학교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판아프리카니즘의 오랜 이상인 아프리카합중국 건설이 최근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철을 밟고자 출범한 아프리카연합이 각종 기능마비로 단순한 지리적 협의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가 그 실현을 위해 벌이는 다양한 노력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초대형 국가로 묶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카다피의 이른바 '통일외교'가 각종 기행으로 얼룩지면서 북아프리카의 아랍권과 사하라이남 흑아프리카의 융합 가능성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문제이다. 한때 남-남 협력의 표본으로 거론되던 아랍-아프리카 관계의 취약점과 한계가 속속들이 드러난 지금, 흑아프리카는 이제라도 아랍문명권과의 분리를 결행하여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 인종분리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범아랍민족주의(panarab nationalism)와 대치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의 흑아프리카는 흔히 '늑대 앞에 선 양'으로 비유될 만큼 무기력한 게 사실이다. 나이지리아의 종교분쟁과 수단의 다르푸르 내전, 모리타니아와 세네갈 간의 유혈인종분규, 그리고 말리와 니제르의 투아레그족 문제 등이 아랍문명권과 흑인문화권 간의 메울 수 없는 괴리를 설명해 준다. 이제는 빛바랜 셰이크 앙타 다음의 흑아프리카연방국가론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이다.

주제어: 아프리카합중국, 판아프리카니즘, 흑아프리카연방, 아프리카연합, 아랍 아프리카, 흑 인정체성, 연방주의

* 본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I-327-2008-2-B00485).

I. 서 론

1960년대 독립 이후 반세기 넘게 잊혀져온 통일아프리카, 즉 ‘아프리카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frica)’ 건설의 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흑인들의 오랜 이상인 판아프리카니즘(Panafricanism, 범아프리카주의)을 구현하는 대신, 식민국경의 불변 원칙을 고수하는 등, 그 신화적(mythic) 요소만을 심화시켜온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가 2002년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으로 재출범했지만 실질적인 통합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리비아의 국가원수 카다피(Muammar al-Kadhafi)가 그 실현을 재촉하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007년 6월 25일, 서부아프리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아프리카대륙에 단일한 ‘범아프리카(pan-african) 국가’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그는 2008년 7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도 하에 개최된 지중해연합(Mediterranean Union)¹ 정상회의를 ‘신식민주의적’이라 비판하며 불참했다. 유럽 27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44개국 정상이 참여하여 국제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은 이 행사에 카다피가 노골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중해연합 구상이 북아프리카를 포용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과연 카다피 식의 아프리카 통일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프리카 통합의 문제는 아프리카인들에게 그 신화적 성격과 긴 역사만큼이나 복잡하고 다난한 과제이다. 2010년 1월 현재에도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 분쟁으로 수백의 인명이 살상되고 있으며, 일찍이 토인비가 아랍과 흑인 문명 간의 경계에서 아프리카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예

1. http://www.lemonde.fr/europe/article/2007/12/21/l-union-mediterranee-sera-lancee-par-un-sommet-a-paris_992325_3214.html(검색일: 2010년 1월 29일)

언했던 수단의 다르푸르(Darfur) 사태는 내전의 소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학살이 지속되고 있다. 일견 탈국가적 정치협상에 따른 주권이양만으로도 가능해 보이는 아프리카합중국 건설의 과정이 사실상 인종, 종교, 자원배분 등의 난제로 가득함을 증명하는 것인 바, 우선 판아프리카니즘의 근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주요 사상가 및 활동가의 면면을 통해 그 지리적 범위와 문화적 범주를 조명하기로 한다. 이어 1970~80년대의 ‘신국제경제질서(NIEO)’ 논란에 편승하여 남남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잠시 주목받던 아랍-아프리카 협력관계의 실상을 살펴본 후, 21세기 현 상황에서 아프리카 통일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여부를 대내외적 요인을 종합하여 분석할 것이다.

II. 아프리카 통합의 신화(神話)성: 역사적 고찰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면, 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합중국이 될 수 없는가? 만약 영국이 연합왕국이라면, 왜 아프리카는 왕국들을 모아 아프리카 연합왕국을 만들지 못하는가?” 영화 <호텔 르완다>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주제곡 *Million Voices*의 한 구절이다.² 아프리카인들에게 아프리카의 통일은 지고불변의 영원인 동시에 이제는 깨어진 이상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미국과 서인도제도의 흑인들 사이에서 인종차별과 학대에 저항하는 방편으로 태동한 판아프리카니즘은 가나의 엔크루마(Kwame Nkrumah)에 의해 아프리카합중국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근대문명의 발전에서 뒤쳐진 탓에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나가고 급기야는 식민통치의 나락에 빠져 신음하는 전세계의 흑인들에게 통일된 아프리카는 하나의 이상향으로서 ‘강대한 조국’을

2. “If America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n why can't Africa be the United States of Africa? And if England is the United Kingdom, then why can't Africa unite all the kingdoms and become United Kingdom of Africa?” 국제적 명성을 지닌 세네갈의 가수 유수 은두르(Youssou N'dour)도 ‘Africa united’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영어, 불어와 Wolof어로 붙여 의미심장하게 노래한 바 있다.

의미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프리카인들의 오랜 숙원인 통일국가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민족, 정치, 경제, 종교적 차이로 분열되어 있는 인구 8억의 가난한 대륙을 하나로 만들자는 최근 카다피의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연대의식보다는 이질감이 더욱 팽배해온 사하라 이남의 흑아프리카와 북부의 아랍세계를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묶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흑인들의 난감한 현실 극복과 탈식민적 각성을 위해 시작된 정신행동이 아프리카대륙 전체를 하나로 묶자는 정치적 구호로 변질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최근 아프리카에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지리적 통일의 신화적 성격을 조명하기로 한다.

1. 이슬람 전파와 노예무역

토인비의 저서가 『아랍 아프리카, 흑아프리카』이고, 프랑스 지정학계의 권위자 라코스트(Yves Lacoste)가 “백아프리카, 흑아프리카”를 제목으로 하여 글을 쓰듯이 아프리카는 애초부터 흑과 백, 둘이었다. 아프리카대륙의 상당부를 남북으로 분리하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사하라사막은 흑아프리카와 아랍제국을, 인접해 있으면서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별개의 문화권으로 독립시켰다. 정치, 경제, 역사,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이한 이 두 지역간의 연결고리가 곧 중세 이후 사막을 종단해온 대상무역³⁾이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종교적, 사회적 현상이 바로 이슬람의 전파와 노예무역이다.

7세기 이후 북부아프리카에 정착한 이슬람이 사하라 이남으로 전파된 것은 11세기경부터이다. 1076년에 이미 가나(Gold Coast)에 다수의 이슬람사

3. 640년 이집트를 점령한 이슬람교도들이 마그레브로 진출하여 베르베르족을 복속, 개종시켰고, 아랍화된 베르베르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상품과 금, 상아, 암염, 고무, 노예 등을 교역하던 기존의 사막루트를 따라 평화적인 포교에 나서 가는 곳마다 상업과 종교의 거점도시를 세웠다. 동부지역에서는 나일강이 누비아를 거쳐 수단에 이르는 통로가 되었으며, 낙타의 도입으로 활성화된 대상무역은 중앙아프리카에까지 도달했다.

원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고, 12세기경 카넴(Kanem)과 보르누(Bornou)에 들어선 흑인 회교왕국에 이어 15세기 이후에는 송가이(Songhai), 말리 등 서부아프리카의 대규모 국가에서 이슬람은 지배계층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된다(Moreau, 1982). 대륙 동부의 수단에서도 서부지역으로 사막을 횡단하는 루트가 개발되는 등 지속되는 교역은 사하라 남부에 인접한 사헬(Sahel)지역의 국가를 대부분 이슬람권에 편입되도록 했다. 17세기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들의 진출과 함께 대륙의 동쪽 인도양 연안에서 흑인과 아랍 문화의 혼합으로 태동한 스와힐리문명은 점차 내륙으로 침투해 가다가 유럽의 식민통치로 인해 그 확산의 동력을 잃고 만다.

이슬람이 흑아프리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 바는 크다. 아랍문명의 가치관과 제도의 도입으로 정치, 행정 구조 및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선진화되면서 이슬람은 ‘정권주체의 한 요소’로서 좀 더 광범위한 국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통치자로 하여금 국민들로부터 종교적 정통성을 인정받아 국체를 확고히 할 수 있게 했다.

지배계층의 종교였던 이슬람이 본격 대중화 되는 것은 18세기이다. 이슬람 교리의 원칙에 치중하는 신비주의적 수피즘(Sufism)이 유행하자 서부아프리카에서는 수입종교인 이슬람을 현지사정에 맞게 변형시켜 믿는 무슬림 형제단(confrérie)이 곳곳에서 발흥하면서 대중적 포교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네갈에서 태동한 무리드(Mourides) 회교종파는 종교를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대중동원에 이용하면서 한때 유럽제국주의세력의 침투에 적극 대항하기도 했다.

한편, 19세기 초 나이지리아 북부에는 이슬람을 정치, 도덕 및 사회 개혁의 도구로 활용하여 이른바 ‘성전(Jihad)’의 기치 하에 이교도들에게 이슬람을 강제하는 호전적인 세력이 나타나 정복전쟁과 정치적 중앙집권화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우스만 단 포디오(Uthman dan Fodio)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슬람의 호전성이 지금도 나이지리아의 뿌리깊은 종교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헬지역의 흑인 원주민들이 이슬람을 비교적 쉽게 수용해 나간 원인으로 아랍-이슬람문화의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를 들기도

한다. 이슬람은 조상숭배와 마법, 영령 및 물신 숭배(fetichism)와 할레 등 아프리카 애니미즘의 관행을 용인하고 공존하도록 했다.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면서도 토속신앙과의 양립이 가능한 이슬람에 대하여 아프리카 흑인들의 반응이 호의적일 수밖에 없던 이유이다(Amon D'Abay, 1962).

그러나 현재 흑인사회에 널리 분포한 이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랍 본연의 이슬람과는 다르다. “사실상 대부분의 아프리카 신도들은 거의 이슬람화 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슬람의 다섯 개 기둥, 즉 유일신과 그 예언자로서의 마호메드, 자선행위(zakat), 하루 5회의 기도, 라마단 기간 중의 단식, 메카 순례(haji)는 지키지만 토착관습에 맞지 않는 샤리아(Shari'ah) 율법과 여성의 베일 등 기타 이슬람적 관행은 종종 무시한다”(고든 외, 2002: 441).

바로 이 점이 종교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통합의 염원이 신화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1970~80년대 많은 재정원조로 협력관계를 다진 이슬람 국가들의 관대함이 대륙 내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고, 비이슬람국가의 행동방향에 때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도, 오늘날 흑인문화와 이슬람 간의 접경인 나이지리아와 수단, 모리타니아와 세네갈 사이 등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종교 및 인종 분규가 결국에는 아프리카합중국의 건설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마는 것이다(Linden, 2005).

아프리카 대륙 내부의 대상무역과 이슬람 전파가 논의될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는 노예무역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 아프리카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통계작성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아랍세계로 팔려간 흑인의 숫자는 매년 대략 5천에서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⁴ 15세기 말부터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아메리카로 건너간 흑인의 수가 최대 2천만 명인데 비해, 사하라의 대상무역으로 9백만, 홍해를 건너 4백만 그리고 인도양 스와힐리어권의 항구에서 4백만의 노예가 아랍제국으로 팔려간 것으로 집계된다.⁵

4. http://www.herodote.net/histoire/synthese.php?ID=13&ID_dossier=123(검색일: 2010년 1월 30일)

5. Elikia M'Bokolo, “La dimension africaine de la traite des Noirs,” *Le Monde diplomatique, Manière de voir*, no. 58, juillet-août 2001, p. 32.

19세기 러시아 왕국의 융성으로 슬라브족 출신의 백인노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오토만제국이 흑인노예무역을 배가시키면서 1860년대 미국독립전쟁으로 면화값이 폭등하자 이집트의 면화농장에 엄청난 숫자가 투입되는 등, 19세기에 수단의 동부지역에서 포획된 노예의 수만도 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otte, 2005: 192). 이 엄청난 규모의 인구유출이 원주민 사회에 외부로부터 강요된 희생이었든 아니면 증대하는 해외로부터의 노예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처한 결과였든 간에⁶ 자그마치 10세기 동안 지속되었음을 감안하면 아랍세계와 사헬지역 사이에 축적된 구원(舊怨)이 어느 정도일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차후 유럽인에 의해 폭력적으로 비교적 단시일 내에 대량 유출된 대서양 노예무역의 경우에 비추어 다른 점은 아랍지역으로 팔려간 흑인 모두가 노예의 신분으로 강제압송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자유인으로서 군인, 무용수 등 다양한 직업에도 종사했다는 점이다. 미주대륙에서와 같은 엄격한 신분차별 관행이 없었고 이슬람 교리에 따르는 아랍인들이 흑인의 존재에 무관심하거나 관대한 편으로 폭력적이지 않았다(Blin, 1988: 24)하여 ‘온화한’ 노예무역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결코 적지 않아 차후 제3장에서 논의될 흑인정체성과 아랍민족주의 간 괴리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인도양 연안의 섬 잔지바르에 정착한 아랍인들에 의해 자행된 플랜테이션 강제노역과 노예무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식민행정관 술탄(sultan)의 정확한 통계로 1830-72년 기간 중 무려 70만 명의 흑인노예가 배에 실려 아랍제국으로 팔려 나갔고, 아랍인 소유의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의 1/5, 즉 매년 최대 12,000명이 노동의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는 한편으로 노예의 수집과 수출의 과정이 대서양무역의 경우와 크게

6. 아프리카 역사가 전적으로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가설 하에, 최근에는 노예무역을 아프리카에 큰 해악을 끼친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보는 대신, 아프리카 자체의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일정한 합리적 근거 위에 행해진 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일고 있다. 노예 포획과 송출이 아프리카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능동적인 측면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은 그런 출혈을 충분히 이겨냈고, 또 외부에 송출된 사람들 역시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근대세계의 형성에 큰 몫을 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유럽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Cf. 주경철, “근대의 비극... 아프리카의 희생인가, 자율인가?”, 한겨레(2008. 5. 10.)

다르지 않았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왕국 또는 종족이 주변의 비이슬람 교도들을 약탈(razzia)하여 노예를 포획하고 이들을 아랍상인들에게 넘겨 팔, 소금 등과 교환하는 관행은 흑아프리카 전역의 해안지대에서 사용된 노예사냥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Devisse, 1989: 11-12). 대상무역을 통한 이슬람의 전파와 함께 아랍세계로 유입된 흑인의 숫자가 미주대륙에 견주어 적지 않음에도 현재 아랍제국 내부에 잔존하는 흑인 디아스포라(Diaspora) 사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필경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2. 범아프리카주의의 태동과 확산, 변천과정

노예무역으로 미주대륙에 강제 이주된 흑인 디아스포라에서 시작된 범아프리카주의는 유럽 식민통치 하의 아프리카대륙에 유입되면서 가나의 옌크 루마를 비롯, 세네갈의 셰이크 앙타 디옵(Cheikh Anta Diop) 등의 흑인 통합론자를 배출하기에 이른다. 이제는 진부한 소재가 되어버린 판아프리카니즘의 최초 태동과정과 그 주요 인물들에 관하여 재차 논하는 대신,⁷ 그 변종으로 생성되어 많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네그리튀드(Négritude)’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이어 범세계적 탈식민의 열풍 속에서 대륙 내 진보와 보수 세력 간 타협의 결과물로 탄생하여 21세기 초까지 존재한 아프리카통일기구(OAU)의 성격과 문제점을 되짚어 보기로 한다.

미국과 서인도제도의 흑인이민사회에서 태동한 판아프리카니즘은 당시 식민상태에 있던 아프리카대륙으로 무대를 옮겨오면서 흑인민족주의(negro-african nationalism)로 진화했다. 이 흑인민족주의는 그 표현양상에 따라 크

7. 판아프리카니즘의 산파역인 Sylvester Williams, Marcus Garvey, W.E.B. Du Bois의 활약상과 1919-45년간 파리, 런던, 뉴욕, 맨체스터 등지에서 5차에 걸쳐 개최된 Panafrikan Congress에 관하여는 한양환, 「아프리카의 대외인식과 한국관」, 『국제사회의 대외인식과 한국관』, 서울: 도서출판 매봉, 2009, pp. 275-276; Fidèle Ogbami, *La Problématique de la Construction des Etats-Unis d'Afrique*, Paris: Harmattan, 2009 참조.

게 두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1930년대 초반 독일 나치즘의 대두를 우려하는 프랑스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흑인의 고뇌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네그리튀드와, 영어권 아프리카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도한 정치적 성향이 강한 아프리카통합론이 바로 그것들이다. 식민통치와 인종차별의 고통에 저항하는 흑인들의 자세가 이렇듯 언어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각 식민종주국의 통치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는 식민지 출신 엘리트들을 우대하여 고위관직을 부여하고 우대한 결과 대다수의 흑인지식인이 식민정부와 타협적으로 권력을 나누어 이양받는 절차를 밟아 독립을 이룩했고, 영어권의 흑인지도자들은 식민모국에 유학하여 엘리트의 길을 걸으면서도 저항의 몸짓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영어권 지역의 경우, 흑인의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남아공과 백인의 기득권 보전에 연연하는 로디지아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한 반발이 타협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한편, 흑인에 의한 흑인성(negro-africanity)의 강조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되는 네그리튀드는 그 의미를 넓게 잡아 흑인문화운동으로 간주할 때 비로소 민족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광의의 네그리튀드를 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때, 우선 흑인의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세제르(Aimé Césaire)의 오열하는 듯한 네그리튀드가 있고, 현학에 가까운 불어어휘의 구사력을 바탕으로 흑인의 문화정서를 자기성찰적으로 표현하는 생고르(Léopold S. Senghor)의 현실타협적 네그리튀드가 있다.

또한 테보에지레(Albert Tévoédjrè)의 분노에 가까운 공격적인 반식민문학도 일종의 흑인민족운동으로서 반항적 네그리튀드로 분류되는가 하면, 또한 서구문명에 의해 말살되다시피한 흑인성을 단순히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문화 전반에 대한 흑인의 기여를 주장하고, 나아가 흑인문화가 백인문화보다 시대적으로 앞서있음을 강조하는 승리추구형의 네그리튀드도 있다. 셰이크 앙타 디옵과 카메룬의 왕족출신 인류학자 보남벨라(D.-A. n. Bonambela)⁸가 바로 그 주창자들인 바, 이들은 흑인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

8. Prince Dika-Akwa nya Bonambela, *Les problèmes de l'anthropologie et de l'histoire africaines*, Yaoundé: Ed. Clé, 1982; *Les descendants des pharaons à travers l'Afrique*, Yaoundé: Ed. Osiris-Africa, 1985.

여 흑인의 열등감에 빠진 역사의식을 바로잡고 흑아프리카 전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cultural unity)에서 흑인일체성(negro identity)을 추출해내고자 했다.

친불성향의 현실타협적 네그리튀드의 주창자인 쟁고르 대통령과 세네갈의 현실정치에서 대립하기도 했던 디옵은 흑인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인 흑아프리카연방국가 건설의 이론적 바탕을 책(Diop, 1960)으로 발간하여 엔크루마의 아프리카합중국 구상과 대조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금도 영어권, 불어권을 막론하고 아프리카 전역의 청년지식인계층에게 아프리카 통일문제에 관한 한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는 그의 통합이론에 관하여는 이하 제4장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각 대륙 흑인엘리트들의 고뇌를 포괄해온 범아프리카주의는 결국 1960년대 독립과 함께 OAU가 창설되면서 아프리카대륙 전체를 하나로 묶는 형식적인 ‘아프리카 통일(African Unity)’ 운동으로 변질되고 만다. 동서냉전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와중에 판아프리카니즘의 ‘사생아(hybrid)’로서 단순한 지리적 통합체에 불과한 OAU의 출범은 사실상 흑인사회통합의 선두주자였던 엔크루마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가 자신의 저서 곳곳에 흑인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범아랍주의에 우선권을 두는 아랍제국과 그 앞에서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흑인국가는 역사적으로 숙명적인 적대관계에 있음을 누누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대륙전체를 포괄하는 OAU를 창설하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전준비단계에서 각국 지도자들의 이념성향에 따라 몬로비아, 카사블랑카 그룹 등 국가 간 분파가 형성되면서 자신의 진보노선에 이집트의 나세르와 알제리의 벤 벨라 등 반식민주의적 아랍지도자들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3. 아랍-아프리카 협력의 허와 실

동서냉전의 와중에서 친서방 또는 기독교 수호에 급급한 흑인지도자들과

9. Kwame Nkrumah, *Autobiographi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72. p. 56; *La lutte des classes en Afriqu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72. p. 107.

탈식민 및 아프리카 통일의 방식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궁지에 몰린 엔크루마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1963년 설립된 OAU는 비동맹회의, 아랍연맹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불과 3년 후 엔크루마의 국내정치가 독재로 흐르면서 그는 외유 중에 군부의 반란으로 실각하고 아프리카 통일의 문제는 결국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만다. 그 대신 1973년 가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선언과 석유전략무기화를 계기로 아랍산유국에 넘쳐나는 오일머니가 흑아프리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아프리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시각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경제에서 1980년대를 풍미한 아랍-아프리카 협력(coopération arabo-africaine)의 관계이다.

아랍산유국들의 석유자본 축적에 기대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국들 사이에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1974년 유엔에서 선포된 ‘신국제경제질서’는 그 진취적 의욕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의 비협조로 난관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남협력의 표본으로 등장한 아랍-아프리카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어서 대다수 관련국가에 연구소가 설립되고 학자들의 연구가 줄을 이으면서 학술세미나의 주제로도 각광을 받았다. 당시 첫발을 내딛은 한국에서의 아프리카연구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홍순남, 1982).

1973년 이른바 석유파동과 함께 시작된 아랍 오일머니의 아프리카 유입은 그 전성기를 지나 전체규모에 대한 통계분석조차 대충 마감되는 1984년까지 양자간, 다자간 원조를 망라하여 총 94억 4,400만 달러에 달했다. 당시 흑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실로 대단한 금액이며 아랍제국의 지원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그야말로 ‘구세주’의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으나,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런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같은 기간 중 아랍제국의 제3세계 전체에 대한 원조액이 800억 달러 이상이었으므로 아프리카에 할당된 것은 겨우 11%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사하라 주변과 인도양의 이슬람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이는 각종 국제회의 석상에서 아랍지도자들이 반복, 강조하는 아프리카와의 각별한 연대, 대상국 선정의 탈종교적 기준 등이 모두 허구였음을 증명하

는 것이다. 게다가 양자간 직접원조의 대상사업으로 흑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이슬람사원 건립과 아랍어 방송국 설립 등 종교편향이 짙은 사업에 비중이 실리다 보니 수혜국으로서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경우 원조액이 급감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관행이 오히려 논리적 설득력이 있어 보일 정도로 아랍-아프리카 협력은 그때들썩함에 비해 실효성의 측면에서 거의 낙제 수준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Amin, 1986: 30; Abdelli-Pasquier, 1991: 6).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랍산유국들이 아프리카 경제의 부실에 따른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이자수익과 이윤추구를 위해 축적된 석유자본의 대부분을 서구의 은행에 적립하여 위탁, 운용하면서 아랍-아프리카 양국 간 원조마저도 점차 IMF, 세계은행 등 서구 국제금융기구의 통제 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¹⁰ 이로써 신국제경제질서의 기치 하에 남남협력의 표상으로 각광 받던 아랍-아프리카 협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빛을 잃고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된다.¹¹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상권을 레바논계 이민이 쥐고 있어 아랍과 아프리카 간 무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양 지역 어느 곳에도 이렇다할만한 한 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조차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 아랍의 자본은 흑아프리카 전반의 대도시에 최고급 호텔 등¹²으로 진출해 있을

10. Azzouz Kerdoun, *La coopération arabo-africaine. Dimensions et perspectives*, Paris: Berger-Levrault, 1987, p. 146.

11. 아랍의 연구지원기금으로 운용되며 아랍-아프리카관계 전문 소책자 *Documents d'Analyse et de Recherche*를 연 4회 발행하던 프랑스 동양어대학(INALCO)의 아랍-아프리카관계연구소(Centre d'Etudes sur les Relations entre le Monde Arabe et l'Afrique, C.E.R.M.A.A.)도 1980년도 중반 활동을 중단했다. 이 분야 연구의 '유행'이 잦아든 지 4반세기가 지난 2008년 12월 국내 아랍아프리카센터에서 소개한 논문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Cf. Saroj Koirala, "New Dimension of Afro-Arab Economic Relationship", 『아프로아랍연구』, 제10권, 2008, pp. 19-26.

12. 사우디 왕조 공주의 이름 하이야트(Hyatt)가 범세계적 고급호텔의 상징이라면, 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의 라이코(Laïco)그룹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콩고 브라자빌과 부르키나파소의 우아가두구(Ouagadougou) 등 아프리카의 대도시에는 리비아 자본이 투입된 라이코호텔이 아랍어 간판을 내걸고 성업 중이다. 2008년 8월 리비아 국영방송은 가봉의 'Africa No. 1' 방송사를 인수하여 주변지역의 2천만 청취자를 대

뿐, 21세기 세계화시대 남남협력의 표상은 중국-흑아프리카 협력뿐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좀더 정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OAU의 뒤를 이은 AU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통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협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유럽연합의 예를 좇아 정치적 통합을 강행하여 과연 무엇을 얻어낼지가 의문인 것이다. 카다피의 우선적 정치통일이 경제의 규모화,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과 막무가내식 외교행보에 신뢰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자신의 국적이 ‘아프리카’임을 고집하는 과거 엔크루마의 한 측근인사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각지의 거점 국가가 나서서 범아프리카 민족주의의 기치 하에 사하라이남 전역을 단시일 내에 무력으로 점령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주장(Bonin, 1991: 224)하기도 하는 바, 이토록 시급한 아프리카의 통합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로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가를 검토해 본다.

III. 아프리카합중국 건설의 현실적 한계

21세기 무차별 세계화의 시대에 아프리카 발전의 기회로서 아프리카합중국의 건설은 이른바 ‘파멸의 대륙’ 흑아프리카의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기만 한 북부아프리카의 아랍국가들과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본 바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라바트 시에는 흑인들이 유럽의 여느 도시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알제리인들에게 ‘흑인여성’은 직감적으로 ‘하녀’를 연상시킨다 한다(Benabdessadok, 1988: 75). 말리의 관광지 도곤(Dogons)족 마을에는

상으로 카다피의 ‘혁명정신’을 붙여, 영어, 아랍어는 물론 스와힐리, 밤바라, 하우스 등 현지어로도 방송하기 시작했다. L’Observateur Paalga, Burkina Faso, <http://www.rue89.com/2008/08/05/omar-bongo-revend-la-radio-africa-n-1-au-libyen-kadhafi?page=0>(검색일: 2010년 2월 5일)

이슬람 새벽기도를 재촉하는 소음이 요란하지만 정작 원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랍인은 싫다”고 한다. 머지않은 곳에서 무장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투아레그(Touareg)족을 경원시하여 하는 말인가? 이유야 어떠하든 투아레그족은 스스로를 극구 ‘백인’으로 자임하며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흑인 정부에 대항하고 있다.¹³ 반면 아랍인들에게 투아레그족은 여지없는 흑인이다. 또 세네갈에서는 북으로 인접한 모리타니아의 모르(Maure)족이 백인임을 자처하여 밍상이다. 도대체 흑인과 아랍인은 서로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 이들을 하나가 되기 어렵게 하는가?

1. 흑인정체성 vs. 아랍민족주의

“사하라 사막은 남쪽에서 볼 때 흰색이고 북에서 보면 검은색이다”라는 말과 함께 알제리의 아프리카성(africanity)을 분석한 논문의 결론이 결국 “알제리는 아프리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lin, 1988: 22-31). 독립 직후 벤 벨라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흑백 간의 인종구분은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흑아프리카와의 유대를 제창한 이후 알제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통일은 역사적 과업이고 아랍문명의 뿌리는 아프리카에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알제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뿌리박혀 있는 아프리카는 검은 것이고 자신들은 희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장구한 세월이 걸쳐 형성되는 국민정체성이 필요에 따라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흑백 간 우열구분에 기초한 인종적 자각도 정치적, 제도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3. 베르베르와 아랍, 흑인 간의 혼혈로 중세부터 사하라사막의 아랍대상을 위협하던 ‘북면의 전사’, 일명 ‘청색인(homme bleu)’으로 유명한 투아레그족은 흑인과의 관계에서 아랍인, 나아가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을 견지하고 있는 민족이다. 총인구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호전적 유목민은 과거 노예사냥(razzia)의 주역이기도 했고, 현재에는 니제르, 말리 등 흑인국가에 분산·수용되어 ‘아프리카의 쿠르드(Kurde)족’으로 지칭되면서 아랍인과 흑인 간의 융합이 쉽지 않음을 실증하고 있다. Cf. Dea Sangaré, “Le Mali et ses Touaregs,” *De l’Afrique au Gondwana*, Revue française de géopolitique, no. 11, Ed. Erès, 2005, pp. 345-346.

이점은 노예무역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팔려가 차별과 압제에 시달리던 흑인들이 대대손손 실감해온 사항이다. 그래서 생겨난 판아프리카니즘이 오늘날 아프리카로 이입되어 대륙전체를 포괄하는 지리적 범주 내에서 아랍세계의 백인들과 하나가 되자는 전략적 구호로 변질되었으니 문제인 것이다. 급기야는 ‘신-판아프리카니즘(neo-panafricanism)’을 기치로 흑인정체성과 아랍민족주의를 아우르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전망은 그리 밝다 할 수 없다.

우선 아랍민족주의의 특수성에서 그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아랍과 비아랍 종족을 구분하는 언어, 사회,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범아랍주의와 아랍공동체(umma) 등으로 시대별 상황에 따라 변천해온 아랍민족주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로 보기 어렵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랍국가들 간 지리적 국경을 초월하는 정치적 통합의 기제로 작용해 왔는 바, 나세리즘이 그 대표적 예로 제시된다.¹⁴ 1960년대 초반 나세리즘의 공격적 진보성향이 독립 직후 상당수 흑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온건성향의 몬로비아 그룹이 결성되고, 이것이 엔크루마의 대륙통합 시도에 영향을 미쳐 결국 타협의 결과 백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느슨한 지리적 연대가 OAU로 형상화했음은 이미 위에 설명된 바와 같다.

사실상, 엔크루마도 범아랍주의에 우선권을 두는 아랍세계와 흑인국가들 간에 노예무역 등으로 고착된 숙명적인 적대관계를 주지하고 있었고, 그의 저서 곳곳에서도 흑인의 일체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전체를 포괄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은 사전준비단계에서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브라자벨, 몬로비아, 카사블랑카 그룹 등 분과가 형성되어 대립하자 자신의 진보노선에 이집트의 나세르를 대표로 하는 북부아프리카 아랍제국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지리적 연대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제도화한 AU의 범주 내에서도 흑인정체성에 기반하는 판아프리카니즘이 별개의 지역통합 이념인 판아라비즘과 공존하면서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4. 김정위, 『이슬람문화사』, 서울: 문학예술사, 1981, p. 267; 최동주, 「중동분쟁과 나세리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6집, 2002, p. 94에서 재인용.

다. 이를 프랑스의 총리실 산하 현대아프리카-아시아연구소(CHEAM)¹⁵의 프뤼리히(Jean-Claude Froelich)는 “오늘날 아프리카인들은 통일을 희망한다. 이는 매우 강력한 의사의 표시이며 시의적절한 것이지만, 대륙전체를 실현목표로 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표범과 염소가 장기간 공생하는 경우는 없다. 염소는 당연히 잡혀 먹힐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채식 동물들과 교류하는 것만이 그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라며 비유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 후 이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테크라엔(Philippe Decraene)은 “오래전 유럽인들은 흑아프리카가 하나로 뭉치겠다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이제는 흑아프리카인들의 차례로, 이들은 북부의 아랍아프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하나의 동일한 권역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완곡히 표현하기도 했다.¹⁶

이러한 논리의 전개를 혹자는 인종분리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도 하겠지만, 지극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범아랍 민족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사하라이남의 흑아프리카는 흔히 늑대 앞에 선 양에 비유될 만큼 무기력한 게 사실이다. 종교분쟁과 종족분규가 혼합된 수단의 내전, 리비아와 차드간의 국경분쟁이 흑아프리카의 열세를 말해주는가 하면, 한때 극에 달했던 모리타니아와 세네갈 간의 유혈사태와 말리, 니제르 북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투아레그족의 자치를 위한 분리요구는 아랍문화권과 흑인문화권 간의 메울 수 없는 괴리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2. 다르푸르, 아프리카 통일의 시금석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는 오늘날 아프리카 최악의 분쟁으로 2003년 이후 20만의 희생자를 기록하며 지속되고 있다. 바로 이 수단 북부의 이슬람정권

15. Centre des Hautes Etudes sur l'Afrique et l'Asie Modernes.

16. Yanghwan HAN, *Cheikh Anta Diop et le fondement politique d'un Etat fédéral d'Afrique noir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 1, 1993, pp. 176-177에서 재인용.

과 남부 흑인사회의 갈등이 아프리카대륙에서 합중국 탄생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금석과도 같다. 일찍이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이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2개의 수단 문제는 곧 2개의 아프리카 문제를 축약해 보여준다. (...) 이 두 민족(남부의 흑인과 북부의 아랍인) 진영 간의 화해는 대륙전체 재건의 초석이 될 것이나, 분쟁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흑아프리카를 북부아프리카에 대립시키는 증오의 상징이 될 것이며, 그러면 아프리카의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예언한 바 있다.¹⁷

다르푸르 사태를 두고 흔히 수단 남부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두고 벌어지는 자원쟁탈전의 성격이 짙다 하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아랍민족과 흑인종족 사이의 갈등을 간과하고는 분쟁의 기원과 추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수단의 남북간 분규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종교적, 인종적 차별은 사하라 사막 주변의 다수 국가에서 목격되는 아랍인의 흑인에 대한 인종적 우월주의를 설명하는 데도 매우 요긴하다. 2005년의 평화협정에 따라 6년간의 과도기적 자치(自治)가 진행 중인 남부의 반란지역에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 분리독립 여부를 논제로 하지 않는 한 본고에서 다르푸르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자세히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¹⁸ 한가지, 1989년 이후 대량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알-바시르(Omar Al-Bashir)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¹⁹ 애당초 유보적인 미국에 이어,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이 반대 입장을 정리하자 리비아의 카다피는 ICC의 결정에 아프리카에 대한 ‘재식민’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하면서 ‘선 평화정착, 후 정의구현’을 AU의 공식입장으로 내세우려 했지만 석유자본과 무관하게 다이아몬드 산업으로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보츠와나가 이에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아프리카합중국의 건설이 쉽지 않

17. Arnold J. Toynbee, *Afrique arabe, Afrique noire*, Paris: La Bibliothèque arabe-Sindbad, 1972, pp. 23-24.

18. 박찬기 (2008), Johnson (2003), Coghlan (2005) 등 참조.

19. Cf. *Business Day*, “Sudan: AU quandary over Sudan Genocide”, Johannesburg, South Africa(04 February 2010) transmitted by Norwegian Council for Africa(www.afrika.no) in *Africa News Update* 04/02/10.

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서양 연안의 모리타니아와 세네갈에서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모르족과 흑인들 사이의 유혈반목 사태, 그리고 그 반대편인 인도양 연안 소말리아의 오랜 분쟁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2006년 12월에는 비이슬람계인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의 흑인병력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진입하여 반군무장조직인 이슬람법정연합(Union of Islamic Courts)을 축출하면서 내전이 확산되기도 했다. 투아레그와 모르 족처럼 이슬람계인 소말리족도 스스로를 아랍인으로 규정하며 흑인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민족이다. 이들 ‘경계 민족(ethnie frontalière)’은 언젠든 아프리카의 통일이 본격 논의되는 시점이 오면 흑인정권 출범 이후 남아공 식의 가칭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출석시켜 과거 십수세기 동안 쌓여온 주변 흑인종족들과의 원한관계를 풀고 화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1950년 1월 연방제와 민주주의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발효시켜 공화국으로 출범한 인도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리비아의 카다피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10억의 인구와 서로 다른 종교들, 그리고 수많은 종족과 언어를 대륙전체의 규모로 포괄하는 합중국 탄생이 가능할 것이다.²⁰

3. 카다피의 전횡, 득보다 실

판아프리카니즘의 원조 엔크루마의 못다 이룬 꿈이 서려있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2007년 7월초 아프리카 통합 문제를 주요안건으로 개최된 AU 제9차 정상회의는 1963년 OUA의 출범이 논의되던 당시와 분위기가 유사했다. 리비아의 국가원수 카다피가 엔크루마의 역할을 맡고, 급진적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이 과거 친서방 ‘온건’파에서 남아공의 음베키 대통령과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국가들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2002년 출범한 AU가 53개 회원국 간의 ‘느슨한 경제연맹(loose economic

20. Béchir Ben Yahmed, “Ce que je crois: Etats-Unis d’Afrique?,” *Jeune Afrique*, 8 juillet 2007.

confederation)’을 추구하면서 전신인 OAU의 기능마비(dysfunction) 현상을 답습하는 상황에서 카다피는 “아프리카의 개별 국가들은 실패했고 미래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분쟁과 빈곤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해법으로 ‘아프리카합중국’의 설립을 재추진해 왔다. 북한의 김정일과 함께 ‘불량국가(rogue state)’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한때 나세르의 위업을 승계하겠다고 아랍권의 통일을 주창하던 그가 갑자기 아프리카 통일연방정부의 단시일 내 수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²¹

아프리카의 갖가지 만성질환에 대한 ‘외과적 수술요법’²²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 급진적 주장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우선 지중해연합을 통해 북부아프리카와의 유대강화를 도모하는 프랑스에서는 카다피의 좌충우돌식 외교²³가 환상에 불과하다며 폄하하는 분위기가 대세이다. 사실상 서구인의 눈에 비쳐온, 나아가 서구의 언론을 통해 지구상에 유포된 카다피의 이미지는 지극히 부정적이다. 평범한 프랑스인의 그에 대한 첫 언급이 ‘암살자의 면상(tête d’assassin)’일 수밖에 없음은 그가 40년 재임기간 중 로커비(Lockerbie) 항공참사 뿐만 아니라 아부 니달, 카를로스 등으로 상징되는 국제적 테러리즘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점은 아프리카의 역대 친서방 흑인지도자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과거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Mobutu Sese Seko) 등 여러 신

-
21. 나세리즘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카다피가 갑자기 엔크루마의 유업 달성에 나선 것은 1998년 6월 OAU가 유엔의 리비아 봉쇄조치를 무시하고 일부 흑인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방문하도록 하여 격려해준 탓으로 판단된다. 아랍민족을 위한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아랍연맹에 대한 적개심과 동시에 마침 은퇴한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남긴 공백을 메우면서 그의 역사적인 카리스마를 이어받을 요량 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Bounenni, 2005).
 22. 인터넷 확산에 힘입은 아프리카의 네티즌 Arsène Dally가 2009년 12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Etats-Unis d’Afrique: un rêve chirurgical...”. Cf. <http://criticafric.ning.com/profiles/blogs/etats-unis-dafrique-un-reve>(검색일: 2010년 1월 30일)
 23. 2009년 AU의장의 자격으로 카다피는 모리타니아 Ould Abdelaziz 장군의 철권통치를 옹호하고 니제르를 방문하여 Mamadou Tandja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을 권고하여 분규를 초래했는가 하면, 기니(Guinée)에서 2008년 12월 쿠데타로 집권한 Dadis Camara에게 익년 9월 28일의 코나크리 학살사건에 대한 UN의 조사를 저지하도록 종용하여 아프리카 내에서의 비난여론이 높다. *Jeune Afrique*, no. 2549, 15-21 nov. 2009, p. 120.

식민주의적 성향의 인물들이 리비아의 테러위협에 시달렸을 만큼 카다피의 ‘초록색’ 혁명노선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쿠데타와 체제불안의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던 그가 세기가 바뀌면서 자국의 풍족한 석유자본을 동원하여 AU의 출범을 주도하고, 흑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자신의 합중국 건설 의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왔음은 정상적인 외교행위로 보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 특유의 ‘튀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스스로를 아프리카의 ‘왕’으로 자칭하는 이른바 ‘병적 징후’²⁴가 바로 그것이다.

카다피의 제안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인물은 이슬람국가인 세네갈의 와드(Abdoulaye Wade)대통령으로, 그는 2005년 11월 나이지리아의 행정수도 아부자에서 열린 AU회담에서 “아프리카가 통일되면 본인은 세네갈의 주지사(Governor)로 기꺼이 근무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밖에도 라이베리아의 여성대통령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등 주로 중서부 사헬지역의 빈곤국 지도자들이 카다피의 행보를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7년 6월 서부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카다피가 기네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5만의 관중을 모아 연설하면서 청년계층을 위한 250만 기네프랑 즉시지급 등 상당액수의 직접원조를 약속했음에서 알 수 있다. 이슬람과의 거리감이 적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집권층이 독립국가의 기득권을 아랍의 석유자본 유입에 따른 경제회생과 맞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서부의 산유대국 나이지리아와 남부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단계적인 지역별 통합과정이 대륙전체의 통일에 우선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00년 묵은 아프리카의 통합문제가 이제 북부 아랍국가의 석유자본에 그 이니셔티브를 넘기게 되는지, 아니면 역내 제1의 경제대국 남아공을 중심으로 하는 SADC가 흑인의 자존심을 살려 그 과정을 주도할 것인가는 두고 볼

24. Le Monde, 2009. 7. 10: 아프리카 전통사회의 족장을 200여 명 초청하여 ‘왕중왕’으로 ‘등극’하는 행사를 벌인 것이 국제적 조롱의 대상이 된 후, 2009년 2월 아디스아바바에서의 제12차 AU 정상회의는 1년 임기 의장으로 선출된 카다피가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회담에 자신의 ‘전통적’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또 그 ‘유명한’ 베드윈족 전통의 텐트 속에 기거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 예방을 위해 교역을 치른 바 있다. http://www.rfi.fr/actu/fr/articles/112/article_79748.asp(검색일: 2010년 2월 2일)

일이다. 실상 리비아와 흑아프리카 간에는 과거 대상노예무역의 잔재처럼 미미한 수준의 몇몇 농산품과 섬유, 차량부품, 건축자재 등의 교역이 있을 뿐이다.²⁵

아프리카의 통일 이후에도 일방적인 석유자본의 투입 이외에 다른 상호보완적 관계는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다피의 영향력이 지대한 현재의 상황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제도화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나인 ‘비균형적 농담관계(asymmetrical joking relationship)’와 흡사하다. 상대방의 약점을 비꼬는 짓궂은 농담으로 심각한 갈등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농담관계 이론을 아프리카 내부의 국제관계에 적용하면, 석유와 가스 부존자원으로 비교우위에 선 리비아의 카다피가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흑인지도자들을 ‘반역·반동분자’²⁶로 몰아세우며 흑아프리카를 마구 ‘농락’하는데도 오일머니의 위력에 굴복한 빈곤국들이 제대로 응수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²⁷

IV. 전망 및 대안

빈곤한 흑인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북부아프리카의 아랍문명권 국가들과 합중국을 건설하여 공동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게 현 상황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각국의 대통령이 주권을 양도한 후 일개 주지사의 신분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월등한 경제력을 보유한 아

25. Emmanuel Grégoire, “La difficile insertion de l’Afrique de l’Ouest dans la mondialisation,” *Les temps modernes*, nos. 620-621, août-nov, 2002, p. 398.

26. AFP, “Kadhafi dénonce les traîtres et réactionnaires,” *Libye*, 15 juin 2008.

27. 2005년 10월 파리의 Science Po가 개최한 ‘사촌 인척과 정책: 아프리카에서의 농담과 정책 간 연합(The ‘Cousin’ and Policy: Alliances with Jokes and Policy in Africa)’ 학술대회에서 미국 Depauw대학의 Brett O’Bannon 교수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의 하나인 부족 간에 서로 욕설은 하되 공격은 하지 않는 관행이 분쟁해결의 효과적 수단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ttp://www.collegenews.org/x4902.xml> (검색일: 2010년 2월 2일)

랍민족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 대표자들이 전면에 배치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아프리카합중국의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륙의회가 구성되어 권력배분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고조되기 마련인 다수 흑인민족의 불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흑·백 아프리카 양 지역 간의 융합까지는 당장 기대하기가 어려운 만큼 우선 협력관계의 진작을 위한 갈등관계 해소방안이라도 정치, 경제, 역사, 종교, 문화의 차원에서 세밀히 연구하여 간극을 좁혀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프리카 통일의 불가능성과 한계가 분명하다면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1. 대륙적 통합의 전제조건: 삼부회

카다피는 당장 각국의 군대를 통폐합하여 합중국의 중앙정부군으로 편제 한 다음, 화폐 통일과 아프리카 국적의 여권 발행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대륙 내 통행자유화를 시행하지는 진부한 주장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군 부통합이 합중국 건설의 단초임은 자명하나,²⁸ 그가 자국 내의 흑인 불법이민자를 수만 명 쯤 색출하여 추방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사항을 역명제를 만들어 거듭 강조하고 또 그 이유를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 최면효과가 발휘되어 결국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화술과도 같다.

사하라사막의 오랜 노예무역으로 인한 피해와 그 과정에서 얽힌 원한 관계를 푸는 것도 역시 장기간의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 분규 이후의 상처봉합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자신의 과오를 공개하고 상호간 용서를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다. 이를 원용하여 아랍제국이 흑인국가에 대하여 노예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약속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화를 통

28. Marc Fontrier, “Des armées africaines: comment et pourquoi faire?,” *De l’Afrique au Gondwana*, op. cit., pp. 347-374.

해 피해보상액의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흑인사회가 아랍산유국으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이 ‘무임승차’가 아닌 정당한 보상수혜가 되어 양 지역 간의 관계를 비교적 대등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동시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 차후 유럽과 아메리카로부터도 노예무역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금상첨화이다.

한편 아프리카 전체의 통합방식과 절차를 논하는 과정에서는 ‘삼부회’²⁹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바, 그 이유는 대륙 내에 공존하며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있는 백인들에게도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Lacoste, 1992: 38-41). 이 삼부회에는 아랍 및 흑아프리카의 국가 대표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백인 대표, 즉 남아공의 백인 기업인, 남아프리카의 백인 농장주 그리고 각지의 상권을 장악한 레비논계, 인도계와 아시아 출신의 상인들까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통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켜 외국인 소유 자본의 해외이탈을 막는 방법임은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모든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963년 OAU의 창설과 함께 명문화되어 수많은 분쟁의 원인으로 되어온 ‘국경불변의 원칙’이 대폭 수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럽식민통치가 남긴 최대의 부정적 유산으로서, 현재의 불합리한 국경이 합중국의 지방행정단위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편되지 않고는 대륙차원의 규모의 경제도 기대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현대사의 금과옥조로서 터부(taboo)시 되어온 국경의 재획정과 함께 일부 지역에 편중된 부의 재분배 문제도 통합조치 이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연방제 국가의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perequation system)를 두루 연구하여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연방헌법에 명시해야만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게 된다. 이 과정에는 백

29. States General(*Etats généraux*).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3가지 신분, 즉 소수 특권층인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대다수 민중을 포괄하는 제3신분의 대표로 이루어진 신분제 의회. 그 기원은 13세기 국왕에게 자문을 수행하던 합동대표제에 있으며, 17세기 이후 3계급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기능이 약화되었다가 대혁명 초기에 재정 위기, 왕권 약화에 따른 광범위한 소요사태로 인해 재조직되었으나 개혁이 두 특권층에 의해 저지될 것을 우려한 제3신분 대표들이 혁명적 국민의회를 별도 소집(1789. 6. 17)함으로써 전통적 사회계급을 토대로 하는 삼부제는 종식되었다.

인대표의 의견 반영과 함께, 대륙 내 주요 자원부국이 전체를 위해 자국의 부를 기꺼이 공유하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독립 직후 국가 간 연방체 구성 시도가 있을 때마다 불거져 나오던 ‘젓소’³⁰ 타령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면 모든 논의는 벽에 부딪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더불어, 합중국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협의해야 한다. AU의 전신인 OAU가 아디스아바바에 본부를 둔 것은 에티오피아의 독립 상징성 때문이었지만, 만일 현 상황에서 카다피의 추진동력이 유효하여 조만간에 아프리카합중국이 실현된다면 그 수도는 리비아의 행정수도 씨트(Sirte)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륙 북단의 소도시에서 차후 중부내륙으로의 수도이전은 흑아프리카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상으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필수불가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카다피의 독선적 외교행보가 득보다 실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모든 사항에 대한 합의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미 지난 반세기동안 OAU의 범주 내에서 많은 토론과 조정이 있었고, 또 아랍산유국들로부터 많은 경제원조를 받아내기도 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스페인령 사하라(RAS D)³¹문제 등으로 인한 OAU의 내분과 같이 단순한 지리적 통합의 폐해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다. 만일 통일을 앞둔 대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독립 직후 OAU 설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구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셰이크 앙타 디옴의 ‘흑아프리카 연방 국가론’이다.

30. La vache à lait. 코트디부아르의 우푸에 부아니 대통령이 1960년대 빈번했던 연방구성 논의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부유한 조국이 주변의 빈곤국들에게 매일 우유를 짜서 나누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함.

31. République arabe sahraouie démocratique. 일명 Western Sahara의 독립문제로 모로코와 Polisario가 대립하는 와중에 OAU 사무총장 Edem Kodjo가 민족자결의 원칙을 들어 1984년 RASD의 OAU 가입을 승인하자 모로코가 탈퇴했고 이어 자이르가 동반탈퇴함으로써 OAU의 내분은 극에 달한 바 있다. Cf. Yangwan HAN, *Le Zaïre face au monde arabe 1974-1984. Etude de l'influence des facteurs de l'environnement sur le comportement diplomatique du Zaïre dans le cadre de l'OUA*, mémoire du DESS "Développement et Coopération", Université Paris 1, 1986.

2. 흑아프리카 연방국가론

세네갈을 대표하는 학자인 동시에 현실 정치가였던 세이크 앙타 디옴이 독립 이전부터 구상했던 ‘흑아프리카연방국가(Black African Federation)’의 우선적인 특징은 흑백분리주의이다. 흑아프리카의 발칸화가 정치, 경제적 불행의 전조임을 우려한 그는 1960년에 이미 아프리카통합의 이상적인 형태로 북부의 아랍문명권을 제외한 사하라이남 흑인국가들만의 연합을 제안했다. 각 지역별 경제공동체를 하부구조로 연방제의 효율을 살려, 사하라사막을 횡단하는 북위 23.5° 북회귀선 이남의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이 판아프리카니즘의 오랜 이상에 가장 부합한다는 그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은 지금도 흑인지식층 사이에 무수히 많다.³² 지난 반세기동안의 경험이 결국 흑백간의 인종분리가 최선의 대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껏 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예언하듯, 그는 1950년대부터 아랍권과 별도로 분리된 흑아프리카연방을 구상하면서 모리타니아와 같은 아랍인과 흑인의 혼성국가에는 원충국의 특수지위를 부여하고, 지중해와의 교통을 위해 튀니지의 해안을 임차하여 항구를 건설하며 아프리카 현지어 중의 하나를 흑아프리카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제안도 서슴지 않았다. 아프리카합중국 건설의 첫 단계로 통치조직의 모형을 제시했던 엔크루마와는 달리, 그는 정치적 구상보다 향후 산업발전 전망에 치중하여 사하라 이남을 8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의 부존자원을 열거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분야별 산업배치까지를 그의 저서 ‘미래 흑아프리카연방국가 건설의 문화, 기술, 산업적 기초’(Diop, 1960)에 치밀하게 정리했다. 아프리카의 독립 이전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지역별 발전계획을 단순히 그의 학자적 취향의 발로라고 하기에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저발전 문제가 너무나도 절실한 게 사실 아닌가.

전반적으로 내전은 소강상태라지만 아직도 기아, 빈곤과 질병으로 요약되

32. 그의 명성은 서부아프리카의 명문 다카르대학이 교명을 자국 세네갈의 시인대통령 생고르가 아닌 Ch. A. Diop 국립대학으로 변경했음으로도 증명된다.

는 흑아프리카의 현실을 놓고 OAU의 창설과 함께 퇴색해 버린 범아프리카주의 또는 흑인민족주의의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후 약방문에 불과할 수 있다. 불완전하나마 주권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행위주체로 인정받는 흑인국가들이 하나의 연방체로 통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기인(奇人) 카다피가 장기독재의 산물이라는 해도 리비아의 국부를 ‘남용’해가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호기일 수도 있지 않은가?

독립 당시 할당된 좁은 국토에 집착하는 미시적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갈등과 분열을 폭압적으로 봉합하면서 지금도 국가의 자원을 지배 기득권계층의 전유물로 여겨 상당부분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흑인지도자들에게 카다피의 전횡이 금전적 보상 탓에 싫지 않은 ‘광기(狂氣)’라면 셰이크 앙타 디옌의 ‘선견지명’은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 독립이후 제1세대 신식민주의 정치인 중의 하나로서 도둑정치(kleptocracy)³³의 원흉으로 지탄받는 옛 자이르의 모부투도 ‘흑인국가연맹’³⁴이라는 유사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프리카의 통일은 곧 미국, 러시아, 중국에 버금가는 초대형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빈곤극복, 분쟁적결과 사회통합은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를 앞당겨 국제사회의 판형을 뒤엎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단 사하라 이남의 흑인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준대륙적(sub-continental) 아프리카 통합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일일 것이다(한양환, 1994)

V. 결론

아프리카합중국 건설의 문제는 아프리카인,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흑인들

33. Jean-François Bayart, “The ‘Social Capital’ of the Felonious State or the Ruses of Political Intelligence,” *The Criminalization of the State in Africa*, Oxford: James Currey, 1999, pp. 32-48.

34. League des Etats d’Afrique Noire.

에게 익숙한 주제이다. 2006년 상상 속의 통일된 아프리카를 소재로 한 소설 『아프리카합중국에서』³⁵에 이어 영화 『아프리카 파라다이스』³⁶가 개봉되면서 이미 반세기 이전에 아프리카 독립의 선구자 엔크루마가 주창하여 당시 대다수 흑인지도자들로부터 개인적 집권욕의 산물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그 합중국에 관한 논란이 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완전한 시대적 역발상, 즉 지구상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아프리카합중국에 이제는 과멸한 서구인들의 이민러시가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판타지에 가까운 형식으로 그려낸 이들 작품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고무되진 않았을 것임에도, 간간히 외신을 타는 그의 기행들이 아프리카 통합의 문제를 다시금 대륙 내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카다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륙전체를 포괄하는 합중국이 실현되든, 세이크 앙타 디오펀이 희망했던 흑아프리카만의 단독연합체가 결성되든 양자 모두 연방제의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다. 다양성(diversity)과 통일성(un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방주의는 그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점 못지않게 단점 또한 많다. 단순한 권력분점의 방식을 초월하여 사회구성원 집단 전체의 정체성과 모든 개별적 욕구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연방제를 과연 아프리카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연구해야 할 이상적인 연방국의 모델로 미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3세계에 건재하는 인도연방공화국의 경우가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해체된 동구의 유고연방, 체코연방도 반면교사로서 그 원인분석을 통해 교훈을 얻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통일 이후 아프리카의 방대한 다원적 사회에서 내부 분쟁을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국경의 재편으로 더욱 복잡해진 지역, 종족 간의 마찰을 협

35. Abdourahman A. Waberi, *Aux Etats-Unis d'Afrique*, Paris: Ed. Jean-Claude Lattès, 2006.

36. 베네의 Sylvestre Amoussou가 감독한 이 영화는 아프리카합중국에 이민을 오고자 노력하는 프랑스인 부부의 실패담을 담아 아프리카 영화의 범주를 공상영화로까지 확대시켰다. Cf. 홍미선,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p. 175.

상을 통해 공동의 이익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연방제의 제도적 장치들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종족그룹에게 상당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방을 구성하는 행정단위의 경계가 종족분포의 경계와 일치해야 하는 등, 빈곤한 아프리카대륙에 연방주의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우려될 정도이다. 그러나 잦은 소요에도 불구하고 연방체의 골격을 든든히 유지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의 예에서 흑인선각자들이 독립이전부터 추구해 온 통일아프리카의 이념 또는 범아프리카 연방주의가 아직 그 효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반세기 전에 오늘날 아프리카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훌륭한 예방책일 수도 있었던 연방주의가 21세기의 아프리카의 토양에 제대로 뿌리 내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는 기적적인 마법의 효과’를 기대 이상으로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박찬기. 2008. 「다르프르(Darfur)내전의 배경과 원인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26권 2호.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pp. 227-276.
- 신원용(외). 2005. 『아프리카의 지역통합과 세계화』. 서울: 신지서원.
- 에이프릴 고든 외. 김광수 역. 2002. 『현대 아프리카의 이해』. 서울: 다해.
- 유종현. 2001.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출범과 전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4집. pp. 3-31.
- 조부연. 2004. 「AU 출범 이후 아프리카 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아프리카연구』 제16호. pp. 79-135.
- 최동주. 2002. 「중동분쟁과 나세리즘」.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6집. pp. 85-110.
- 한양환. 1994. 「Cheikh Anta Diop의 흑아프리카연방 구상에 관한 소고」.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7집. pp. 1-19.
- 홍순남. 1982. 「아랍과 아프리카 관계」. 『아프리카연구』 제2호.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pp. 7-46.
- 홍진주. 1982. 「리비아의 대내정책과 대외관계」. 『아프리카연구』 제2호,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pp. 91-118.
- Abdelli-Pasquier, Fadhel. 1991. *La Banque arabe pou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n Afrique (BADEA) et la coopération arabo-africaine de 1975 à 1984*. Paris: Harmattan.

- Africultures. 1998. *Africanité du Maghreb*. No. 13. Paris: Harmattan.
- Afrique et Développement. 1986. *Afro-Arab Cooperation: what form of insertion in the world economy?* Vol. XI, no. 2-3. Dakar: C.O.D.E.S.R.I.A.
- Afrique-Monde Arabe. 1994-1995. *Le Guide des droits de l'Homme*. Paris: Ed. Sans Frontière.
- Amaïzo, Y.-E. (Dir). 2003. *L'Afrique est-elle incapable de s'unir? Lever l'intangibilité des frontières et opter pour un passeport commun*. Paris: Harmattan.
- Amin, Samir. 1986. "La coopération afro-arabe: bilan et perspective." *Afrique et développement*. Vol. XI, No. 2-3. Dakar: CODESRIA.
- Amon D'Aby, F. J. 1962. "Attitude de l'animisme face à l'Islam et au Christianisme." *C.H.E.A.M Notes et Etudes sur l'Islam en Afrique noire*. Paris: Recherches et Documents. pp. 103-114.
- Autrepart. 2000. *Afrique noire et monde arabe: continuités et ruptures*. Nouvelle série no. 16. Paris: Cahiers des sciences humaines, Éditions de L'Aube.
- Ayittey, George B. N. 1998. *Africa in Chao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Bach, D. (Ed). 1999. *Regionalisation in Africa: Integration & Disintegr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 Benabdessadok, Cherifa. 1988. "La négresse dans les contes populaires magrébins." *Notre Librairie*. No. 95, oct-déc. Dialogue Maghreb / Afrique noire. Tome 1: Au-delà du désert. Paris: ADPF.
- Blin, Louis. 1988. "Les Noirs dans l'Algérie contemporaine." *Politique africaine. Noirs et Arabes: une histoire tourmentée*. No. 30, juin. Paris: Karthala. pp.22-31.
- Bonin, Andoch Nutépé. 1991. *Quel avenir pour l'Afrique?* Paris: Ed. Lescaret.
- Botte, Roger. 2005. "Traite et esclavage, du passé au présent." *Esprit, Vues d'Afrique*. No 317, Août-Sept. Paris: Editions Esprit. pp. 188-199.
- Bounenni, Bassam. 2005. "Khadafi d'Afrique." *De l'Afrique au Gondwana. Revue française de géopolitique*. No. 11. Ed. Erès. pp. 177-179.
- Calvet, Louis-Jean. 1999. *La Guerre des Langues et les Politiques Linguistiques*. Paris: Hachette.
- Centre d'études pour l'unité arabe. 1986. *Les Arabes et l'Afrique*. Tomes I et II. Paris: Harmattan.
- Chime, Chimelu. 1978. *Integration and Politics Among African States: Limitations and Horizons of Mid-Term Theorizing*. Uppsala: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 Coghlan, Nicholas. 2005. *Far in the Waste Sudan. On Assignment in Africa*. Montreal: McGill Queen's Univ. Press.
- Devisse, Jean. 1989. "Trans-sahariennes." *Notre Librairie*. No. 96, jan-mars. *Dialogue Maghreb/Afrique noire. Tome 2: L'indépendance... et après?* Paris: ADPF.
- Diop, Ch. A. 1960. *Les fondements culturels, techniques et industriels d'un futur Etat fédéral d'Afrique noire*. Paris: Présence Africaine.

- Diouf, Makhtar. 2003. *L'Afrique dans la mondialisation*. Préf. de Samir Amin. Coll. Forum du tiers-monde. Paris: Harmattan.
- Fauvelle, François-Xavier. 1996. *L'Afrique de Cheikh Anta Diop*. Paris: Karthala.
- Johnson, Douglas H. 2003. *The Root Causes of Sudan's Civil Wars*. The International African Institute. Indiana Univ. Press.
- Kerdoun, Azzouz. 1987. *La coopération arabo-africaine*. Dimensions et perspectives. Paris: Berger Levrault.
- Lacoste, Yves. 1992. "Afrique blanches, Afrique noires." *Hérodote* Nos. 65-66. Juil.-Sept. pp. 3-49.
- Lemarchand, Philippe (Ed). 2006. *Atlas de l'Afrique, Géopolitique du XXIe siècle*. Neuilly: Atlande. pp. 3-49.
- Lewis, P. M. B. 2003. *Crise et croissance en Afrique. L'économie politique de l'Afrique au XXIe siècle*. Coll. Economie et innovation. Paris: Harmattan.
- Linden, Ian. 2005. "La poudrière religieuse du Nigeria." *Esprit, Vues d'Afrique*. No 317, Août-Sept. Paris: Editions Esprit. pp. 147-151.
- Manning, Patrick. 1998. *Francophone Sub-Saharan Africa 1880-1995*.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baku, J. M. & Saxena, S. Ch. 2004. *Africa at the Crossroads, Between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London: Praeger.
- Mbembe, Achille. 2000. *De la postcolonie. Essai sur l'imagination politique dans l'Afrique contemporaine*. Paris: Karthala.
- Monteil, Vincent. 1964. *L'Islam noir*. Paris: Seuil.
- Moreau, René Luc. 1982. "Africains musulmans." *Présence Africaine*. Paris: Présence Africaine. pp. 82-113.
- Ogbami, Fidèle. 2009. *La Problématique de la Construction des Etats-Unis d'Afrique*. Paris: Harmattan.
- Onwudiwe & Ibelema (Ed). 2003. *Afro-Optimism, Perspectives on Africa's Advance*. London: Praeger.
-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2004. *Le mouvement panafricaniste au vingtième siècle*. Recueil de textes. Paris: OIF.
- Sindjoun, Luc. 2002. *Sociologie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africaines*. Paris: Karthala.
- Smith, S. 2005. *Atlas de l'Afrique*. Paris: Ed. Autrement.
- Sylvester, Anthony. 1981. *Arabs and Africans*. Cooperation for Development. London: The Bodley Head.
- Taylor, I. & Williams, P. 2004. *Africa in International Politics*. External Involvement on the Continent. London: Routledge.
- Toten, Samuel and Markusen, Eric (Eds). 2006. *Genocide in Darfur. Investigating the Atrocities in the Sudan*. New York: Routledge.
- Toynbee, A. J. 1972. *Afrique arabe, Afrique noire*. Paris: La Bibliothèque

arabe-Sindbad.

Waberi, Abdourahman A. 2006. *Aux Etats-Unis d'Afrique*. Paris: Ed. Jean-Claude Lattès.

Wallerstein, Immanuel. 2005 (1988). *Africa, the Politics of Independence and Unit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Wallerstein, I. & Balibar, E. 1988. *Race, nation, classe: Les identités ambiguës*. Paris: La Découverte.

The United States of Africa, Myth or Reality?

HAN, Yangwan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Studies, Youngsan University

The recently spreading discussion on creation of a United States of Africa, spurred by Libyan leader Colonel Muammar Kadhafi is making much noise within African Union and around the world. A new prospect for the 21st century of Africa? Yet, libyan leader's call for an immediate formal federation has been greeted with scepticism in other capitals. He envisages a single African military force, a single currency and a single passport for Africans to move freely around the continent, but other African heads of state are still reluctant to recognize the necessity. Only Senegal's President Abdoulaye Wade said he would willingly be a simple governor in the continental federation.

In fact, there are two Africas, black and white, so to say arab. The rivalry between arabism and black-africanism alias Panafricanism, dates back to 10th century and it hinders the continent from binding together in a closer political union. Although the history of pan-african political thought testifies that the unity was originally conceived only for black Africans, 53 countries of Africa have met since 1963 under the auspices of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re-launched as the African Union in July 2001), a simple geographic coalition of two different peoples and cultures.

The prospects of a united Africa within the very boundary of African Union are now encountering double barriers. First, the arrogance of arabism symbolized by Kadhafi who boastfully names himself as the king of the traditional kings of Africa. Second, the unwillingness of black african states, especially those of southern Africa headed by the richest Republic of South Africa. Obviously it's hard for sovereign

states to abandon their national prestige and to abolish national borders.

There's long way to go and the perspective is not so clear. Anyway, the federalism is the key surmounting those obstacles, be it as may so much complicated. If things don't work as hoped, then the Black-african federation put forth in early 1950s by senegalese Cheikh Anta Diop could be the alternative. It's because the unification must be motivated by a clearly identified value, precisely the black african people's self-confidence, which will guarantee them development, peace, security, growth and democracy in this world of bitter rivalries.

Key Words: United States of Africa, African Unity, Arab Africa, Black African federation, Negro-african Identity, Federalism